

## 체질, 생물, 진화: 인류학 분과 명칭의 변화

박한선<sup>1</sup>

<sup>1</sup>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 Physical, Biological, Evolutionary: Changes in the Terminology of Anthropological Subfields

Hanson Park<sup>1</sup>

<sup>1</sup>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transition from physical anthropology to biological anthropology, and then to evolutionary anthropology, exploring the changes in the sub-disciplinary names within anthropology and their modern implications. In the 19th century, Paul Broca in France and Rudolf Virchow in Germany established physical anthropology centered around human morphology and racial classification. However, the limits of this approach became clear under the influences of colonialism and eugenics.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tracked the academic changes and nomenclature shifts in anthropology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historical document analysis. By mid-20th century, as genetics, ecology, and studies on human adaptation rose to prominence, biological anthropology moved beyond the fixed concepts of race, integrating evolutionary theory an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Sherwood Washburn's "New Physical Anthropology" symbolized this turning point. Furthermore, evolutionary anthropology has become a core area of modern anthropology, encompassing biological, behavioral, and cultural dimen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academic development processes in various regions including France, Germany, the UK, the USA, and Korea, and analyzed how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and the activities of representative researchers influenced the changes in sub-disciplinary names within anthropology. These name changes represent not merely lexical adjustments but the maturation and expansion of the academic framework for interpreting human diversity and evolution.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study aimed to lay the groundwork for promoting acade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within anthropology.

**Keywords** : Physical Anthropology, Biological Anthropology, Evolutionary Anthropology, History of Anthropology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December 2, 2024; **Revised:** December 17, 2024;

**Accepted:** December 19, 2024

**Correspondence to:** 박한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E-mail:** hansonpark@snu.ac.kr

## 서론

인류학은 인간의 본질과 다양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며, 그 역사는 사상적·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명칭과 연구 지향점이 지속적으로 수정·재구성되어 왔다. 인류를 다루는 학문적 시도는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존재했으나,

‘인류학(anthropology)’이라는 공식적 명칭과 학문적 정체성이 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인류학의 한 하위 분야로서 인간의 신체적 변이와 생물학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은 19세기 유럽에서 독립적 학문 분과로 태동한 뒤, 20세기 중반 이후 ‘생물인류학(biological anthropology)’, 나아가 ‘진화인류학(evolutionary anthropology)’으로 명칭과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단순한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학 내부의 학문적 시야 확장, 이론적 성숙, 과학사적 전환점을 상징한다.

인류학에 관한 가장 이른 학술적 언급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는 『정치학(Politics)』에서 인간을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존재(zōon logon echon)”라고 정의하고[2],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에서는 의지에 기반한 행동 능력을 강조했으며[3], 『영혼에 관하여(On the Soul)』에서는 촉각과 사고력, 추론 능력을 인간 고유의 특징으로 지목했다[1]. 이러한 정신적·행동적 특성에 대한 강조는 로마 시대와 중세를 거쳐 지속되었는데, 6세기경 이시도루스 히스팔렌시스(Isidorus Hispalensis, c. 560-636)는 『어원학(the Etymologiae)』에서 인간을 의지, 영, 마음, 이성 등의 관점에서 상세히 정의했다[4]. 이러한 전통은 18세기까지 이어져, 박물학자 칼 린네(Carl von Linné, 1707-1778)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특징을 초창기에는 ‘자기 인식(Nosce te ipsum)’으로 표현하다가, 후에는 ‘주행성; 문화와 장소에 따른 변종(Diurnus; varians cultura, loco)’으로 수정하여 인간의 다양한 변이를 인정했다[5].

인간의 정신적 특성(언어, 사고, 논리)을 중시하는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신체적 형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Metaphysics)』에서 “인간은 두 발로 걷는 동물이며, 인간은 털이 없고 두 발로 걷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했으며[6], 『동물사(History of Animals)』에서는 “신체 구조가 다양하고, 등보다 배에 더 많은 털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 같은 얼굴’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묘사하기도 했다[7].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간 고유성이나 집단 차이를 주로 정신·환경·문화 차원, 때로는 신의 징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런 배경에서 ‘인류학’이라는 명칭은 비교적 늦게 등장했다[8]. 이미 정치학, 문학, 신학, 형이상학, 심리학 등이 인간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류학은 ‘인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안트로포스(anthropos)’와 ‘학문’을 뜻하는 라틴어 ‘로기아(logia)’를 합친 말이지만,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안트로폴로고스(anthropologos)’라는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단순히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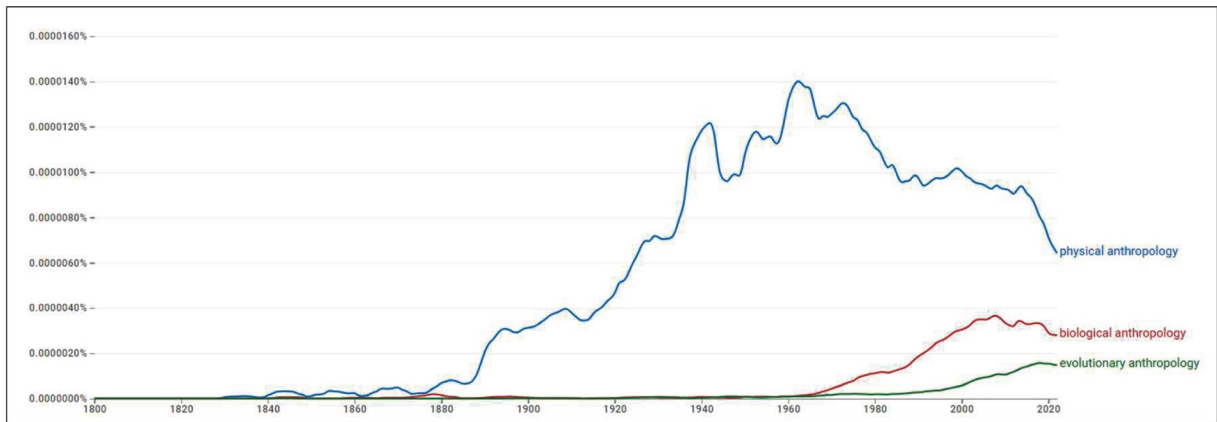
하는 인간’을 지칭한 것이었다[8]. 19세기 영국 인류학자 제임스 헌트(James Hunt, 1833-1869)는 이 용어를 들어 인류학의 어원이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지만, 잘못된 사실이다. 16세기, 리처드 하비(Richard Harvey, 1560-1630)는 브루투스스의 전설에 관한 언급에서 인류학을 들어 ‘계보나 예술, 과거에 일어난 행동’에 관한 학문이라고 했지만[8,9],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학의 정의와 다르다.

인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관한 가장 분명한 서술은 17세기에 발간된 해부학 교과서 『인체의 해부학적 조직(Anatomicae Institutiones Corporis Humani)』에서 찾을 수 있다. 카스파 바르톨린(Caspar Bartholin the Elder)은 이 책에서 “인류학, 즉 인간을 다루는 과학은 해부학과 심리학으로 나뉜다. 해부학은 인간 몸의 각 부분을 연구하며, 심리학은 인간 마음에 관해 다룬다”라고 정의했다[8,10]. 대략 이 무렵부터 인류학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학문적 의미를 갖추게 되었다. 대항해 시대와 계몽기를 거치며 전 세계 인종·민족에 관한 관찰 자료가 축적되면서 인류학은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착했다. 근대 인류학은 점차 민족지학(문화인류학)과 인류학(체질인류학)이라는 두 분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체질인류학’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중반 이후 점차 영향력을 잃고, ‘생물인류학’이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진화인류학(evolutionary anthropology)’이라는 명칭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구글 검색 결과나 Ngram Viewer 분석을 통해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이들 용어의 사용 빈도 변화가 뚜렷이 드러난다(Fig. 1).

Fig.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이라는 용어는 1930~1970년대에 최고조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감했다. 반면 ‘생물인류학(biological anthropology)’은 1950년대 이후 성장세를 보였고, ‘진화인류학(evolutionary anthropology)’은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해 2000년대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간 신체 형질 연구를 중심에 둔 하위 분과가 지난 백여 년 사이 고정된 인종 개념에서 벗어나 진화 이론, 유전학, 생태학, 행동생물학 등 다양한 영역을 수용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현대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명칭 변화가 단지 용어 선택 차원을 넘어서, 인류학 내부의 학문적 시야 확대와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세기 말~20세기 초 대륙 유럽(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체질인류학이 정립된 배경, 영국에서 다윈주의 도입으로 인류학 전반에 진화론적 관점을 심은 전환, 그리고 미국에서의 4분과 체제 확립과 학제적 융합으로 생물·진화인류학으로 발전하는 과정 등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 인종주의와 우생학이라는 역사



**Fig. 1.** Comparative frequency trends of the terms “physical anthropology,” “biological anthropology,” and “evolutionary anthropology” in published literature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1st century, as analyzed using Google Books Ngram Viewer.

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하며, 궁극적으로 현대 인류학이 진화 중심적 이해를 어떻게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요한 학문적 발전의 무대가 되었던 국가들 —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업적과 학회, 연구 기관 설립 과정, 학술지 창간, 개념 재정의, 학문적 갈등과 협력의 역사 등을 정리할 것이다. 앞으로 체질인류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 갈 방향에 관한 다양한 고민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보다 잘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본 론

### 1. 체질인류학의 분화와 통합

여기서는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국가별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흐름을 거쳐 분화되고,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폴 브로카, 독일의 루돌프 피르호, 영국의 토머스 헉슬리, 미국의 사무엘 G. 몰턴,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구보 다케시 등 다섯 명의 대표적 연구자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체질인류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자리 잡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거나, 인류학의 분화·통합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초기 체질인류학의 분화와 통합에 관한 여러 사건을 문헌 고찰 및 역사적 분석을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이유는 체질인류학이 단일한 이론적 틀이나 방법론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정치·사회적 맥락, 학문 전통, 제도적 환경 속에서 상이한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인류학의 역사가 깊은 여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체질인류학 분과 명칭에 관한 시대·공간적 변동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2. 폴 브로카와 프랑스의 체질인류학

체질인류학을 인류학의 독립된 분과로 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대표적 학자는 폴 브로카(Paul Broca)였다(Fig. 2). 인체계측학(anthropometry)과 두개골계측학(cranio-metry)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다양한 인종의 두개골을 측정하여 당시 과학적 인종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였다. 당시 그가 개발한 두개골측정기(cranimeter) 등의 도구는 인류의 신체적 변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11-13].

고인류학자 에릭 트링카우스(Eric Trinkaus, 1948-)에 따르면, 브로카는 파리 민족지학회(Société Ethnologique de Paris) 내에서 자신의 체질적 접근이 이질적으로 간주되자 1859년 파리 인류학회(Société d'Anthropologie de Paris)를 설립하여 인류 기원, 인종 차이, 신체 형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본격화했다[14]. 인류 기원, 인종적 차이, 인간의 신체적 형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주제로 주로 다루는 최초의 학회였다. 당시 뜻을 같이 하는 18명의 과학자와 힘을 합쳐서 학회를 설립했는데, 1880년 사망할 때까지 사무총장을 지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학회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15].

이에 더해 1872년, 브로카는 체질인류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류학 리뷰(Revue d'anthropologie)」을 창간했으며, 이후 이 저널은 다른 학술지들과 합병하여 「인류학(L'Anthropologie)」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6-18]. 당시에는 선사고고학과 민족지학, 법의학, 인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연

구 성과를 다루었으며, 1889년에는 「민족지학 리뷰(Revue d'ethnographie)」 및 「인류의 원시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집(Matériaux pour l'histoire primitive et naturelle de l'homme)」를 합병하였다. 전자는 1882년에 창간된 저널로 주로 민족지학(ethnology)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 사회의 여러 양상을 다루고 있었으며, 후자는 1864년 프랑스의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에드몽드 페르쉬(Edmond Perrier, 1844-1921)에 의해 창간되었는데, 고고학, 인류학, 민족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초기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현재 해당 학회지는 주로 선사 시대에 관한 연구와 고인류학에 중점을 둔 논문을 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제 간 접근을 강조하며 유연한 태도로 생물학적 인간에 관한 여러 연구 논문을 수용하고 있다[19]. 이러한 학술지와 학회의 변천은 프랑스 인류학이 초기 민족지학(ethnology) 중심에서 점차 체질인류학을 분리해내고, 다시 통합적 관점을 모색하는 과정을 반영한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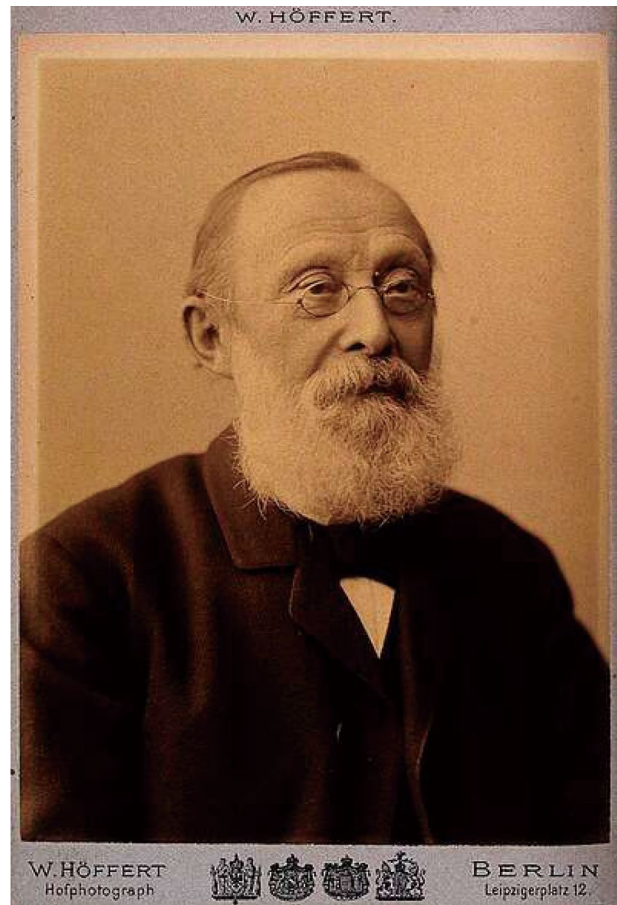


**Fig. 2.** Portrait of Pierre Paul Broca (1824-1880), a French physician, surgeon, and anthropologist known for his groundbreaking research on the language centers of the human brain (Broca's area). Image courtesy of the Wellcome Collection. Public domain image via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ortrait\\_of\\_Pierre-Paul\\_Broca\\_Wellcome\\_M0010155.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ortrait_of_Pierre-Paul_Broca_Wellcome_M0010155.jpg)).

### 3. 루돌프 피르호와 독일의 체질인류학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도 체질인류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 브로카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 1821-1902)가 있었다(Fig. 3). ‘현대 병리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피르호는 해부학, 인류학, 사회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인류학을 생물학·병리학·사회과학과 연계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했다. 인류학자로서 코카서스, 이집트, 수단 등에서 현지 조사에 나서기도 했고, 고고학자로서 트로이 유적의 발굴에 참여하기도 했다[21].

1869년, 피르호는 독일 인류학 연구를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독일 인류학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Ethnologie und Urgeschichte, DGA)를



**Fig. 3.** Portrait of Rudolf Virchow (1821-1902), a German physician, anthropologist, and pathologist known as the “father of modern pathology” and for his contributions to public health. Image courtesy of the Wellcome Collection. Public domain image via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udolph\\_Virchow\\_Wellcome\\_V0050613.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udolph_Virchow_Wellcome_V0050613.jpg)).

설립하였다. 독일어권 지역(괴팅겐,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인류학자와 인간생물학자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체질인류학, 고고학, 민족학 분야의 여러 연구를 주도했다. 피르호는 신체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융합하려는 자신의 다학제적 관심사를 학회의 운영에 반영하여 인류학을 생물학, 병리학, 사회과학과 연결된 학문으로 발전시켰고, 신체적 특성뿐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독일 인류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22]. 1925년, 민족학자 카를 베울레(Karl Weule)의 주도하에 독일 인류학회(Deutsche Anthropologische Gesellschaft, DAG)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점차 인류학이라는 용어가 민족지학과 고고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나치는 독일 내 다양한 학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고, 학문적 독립성을 추구하던 DGA와 갈등을 빚었으며, 1935년경 인류학, 민족지학, 고고학 등 세 분야의 독립된 학회가 창설되면서 해체되었다[23].

그러나 학제 간 연구를 주도하는 피르호의 유산은 중단되지 않았다. 1870년, 피르호는 아돌프 바스티안(Adolf Bastian, 1826-1905), 로베르트 하르트만(Robert Hartmann, 1832-1893) 등과 함께 베를린 인류민족고고학회(Berliner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Ethnologie und Urgeschichte, BGAEU)도 창설했는데, 베를린 지역의 학자를 중심으로 민족학, 고고학 연구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학회 정관에서는 “인류학, 민족학, 선사고고학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촉진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며, 학문적 지식을 심화 및 확장하는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독일 박물관의 소장품 확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다가 1950년에 다시 설립되어 현재도 인류, 고고, 민족지 등 여러 학문 분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24].

또한, 피르호는 바스티안과 함께 민족학 저널(Zeitschrift für Ethnologie, ZfE)의 창립자로서 독일 민족학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저널은 1929년에 독일 민족학회(Gesellschaft für Völkerkunde)에서 시작된 독일 사회문화인류학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Sozial- und Kultur-anthropologie, DGSKA)와 베를린 인류민족고고학회(BGAEU)가 공동으로 발행하며, 현재는 영문명으로 「Journal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JSCA」을 병기하고 있다. 창간 초기부터 체질인류학, 고고학, 민족학, 사회학, 생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류학 연구 발표의 주요 공간을 제공했다[25]. 앞서 말한 보아스는 이 저널에 총 1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민족지학자 브루노 구

트만(Bruno Gutmann, 1876-1966), 언어인류학자 칼 스트레홀로우(Carl Strehlow, 1871-1922), 고고인류학자 레오 프로베니우스(Leo Frobenius, 1873-1938), 체질 인류학자 펠릭스 폰 루산(Felix von Luschan, 1854-1924), 종교인류학자 폴 라딘(Paul Radin, 1883-1959), 사회인류학자 리처드 턴월드(Richard Thurnwald, 1869-1954), 생태인류학자 팀 잉골드(Tim Ingold, 1948-), 사회인류학자 앨런 바너드(Alan Barnard, 1949-) 등 저명한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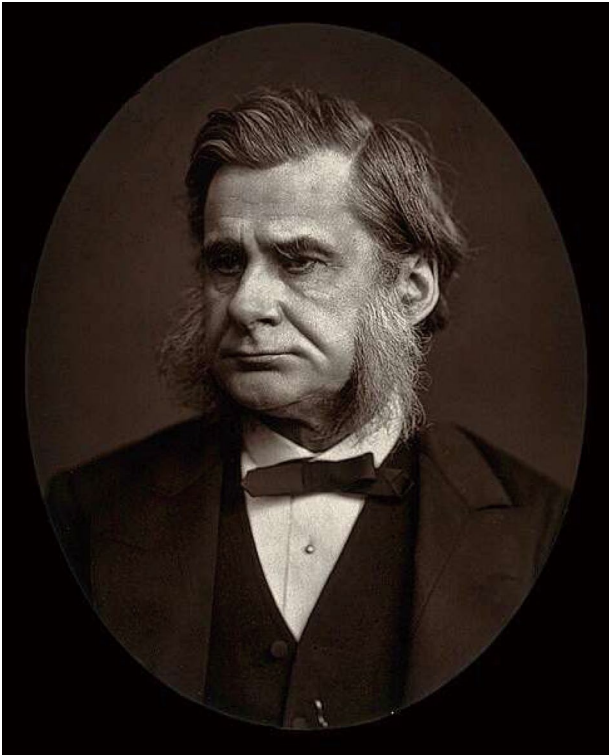
한편, 루돌프 피르호는 진화이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다윈주의가 충분한 증거 없이 과도하게 수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그의 강력한 학문적 권위는 당시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통한 진화론적 논의의 발전을 상당 기간 동안 저해했다[26].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27,28]. 또한, 다윈주의가 반민주적 정치 운동과 결합해 사회다윈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사회다윈주의가 유럽 사회에서 인종적 불평등과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심지어 독일 공립학교 아동 약 676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 계측을 진행하여, 독일 제국 내 아동 중 31.8%는 금발, 14.05%는 흑발, 나머지 54.15%는 혼합 유형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유대인 학생의 경우에도 혼합 유형이 47%를 차지하여 특정 인종의 순수성이라는 주장을 논파했다[29].

이러한 이유로 어니스트 헤켈(Ernst Haeckel, 1834-1919)과 피르호는 진화론을 공립학교 교육과정에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이기도 했다. 비록 이로 인해 1882년 프로이센 정부는 자연사 수업을 공식적으로 커리큘럼에서 제외했고[30-32], 제대로 된 진화이론에 관한 교육이 제한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에서 극단적 우생학이 득세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과학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피르호의 생각은 당시 우생학적 인류학이 점차 득세하던 유럽의 상황에 대응한 학자적 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33,34].

보아스는 독일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피르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881년부터 1883년까지 피르호의 지도하에 체질인류학을 연구하며, 반다윈주의와 반인종주의적 사상을 접했다. 미국으로 이주한 보아스는 인종적 유형론과 생물학적 결정론을 비판하며, 역사적 특수주의(historical particularism)를 주장했다[35].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보아스는 인류학의 4분과 체제를 확립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시도는 이른바 ‘과학적 인종주의’에 경도된 당시의 체질인류학을 보다 폭넓은 주장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인류학이라는 우산 아래 통합하려는 시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 4. 토마스 헉슬리와 영국의 체질인류학

19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민족학, 인류학, 사회진화론이라는 세 전통이 혼재하는 가운데, 의사이자 인류학자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 1825-1895)가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Fig. 4) [36]. “다윈의 불독”이라 불린 헉슬리는 1863년 『자연에서의 인간의 자리에 관한 증거(Evidence as to Man's Place in Nature)』를 출간해, 해부학·고고학·영장류 연구를 종합하며 인간 진화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최초의 체질인류학 교과서로 간주되는 저작이다. 헉슬리는 이 책에서 인간과 유인원 간의 해부학적·생리학적 유사성에 관해 밝히고, 화석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인간이 점진적인 진화를 거쳐 현재의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인간 진화라는 주제를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에 올려놓았다[37]. 또한, 1870년 저작 『인류의 핵심적 차이의 지리적 분포(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Chief Modifications of Mankind)』에서 인간을 9개의 주요 인종으



**Fig. 4.** Portrait of Thomas Henry Huxley (1825-1895), an English biologist often referred to as “Darwin’s Bulldog” for his advocacy of Charles Darwin’s theory of evolution. Photograph by Lock & Whitfield, courtesy of the Wellcome Collection. Public domain image via Wikimedia Commons ([https://en.wikipedia.org/wiki/Thomas\\_Henry\\_Huxley#/media/File:Thomas\\_Henry\\_Huxley.\\_Photograph\\_by\\_Lock\\_&\\_Whitfield.\\_Wellcome\\_V0026596.jpg](https://en.wikipedia.org/wiki/Thomas_Henry_Huxley#/media/File:Thomas_Henry_Huxley._Photograph_by_Lock_&_Whitfield._Wellcome_V0026596.jpg)).

로 분류하며, 신체적 특징과 지리적 분포를 기반으로 인종 간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38].

당시 영국에는 이미 1843년 설립된 런던 민족학회(Ethnological Society of London)가 있었는데, 노예 무역 반대와 복음주의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원주민 보호 협회(Aborigines’ Protection Society)의 분파로 시작되었다. 주요 회원 중 하나인 인류학자 제임스 프리처드(James Cowles Prichard, 1786-1848)는 『인류의 체질적 역사에 대한 연구(Researches into the Physical History of Mankind)』에서 모든 인류가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는 단일기원설(monogenism)을 지지했다[39]. 또한, 1865년부터 1868년까지 회장을 지낸 인류학자 존 러복(John Lubbock, 1834-1913)은 『 선사시대(Prehistoric Times)』라는 선사 시대 도구와 거주 환경, 예술품 등을 분석하며 사회문화적 발전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40].

그러나 1860년대 들어 우생학과 생물학적 인종 구분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인류학자 헉슬리는 런던민족학회를 탈퇴하여, 1863년 런던 인류학회(Anthropological Society of London, ASL)를 창설했다. 『자연에서의 흑인의 자리(The Negro’s Place in Nature)』라는 논문에서 다인종기원설(polygenism)에 입각해 흑인과 원숭이가 해부학적으로 가깝다고 주장하여 인종차별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한 인물이다[41]. 심지어 헉슬리는 미국 남부 연합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흑인이 높은 수준의 발전이 불가능한 개별 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42].

영국 체질인류학 분열은 당시 인종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맞물려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비평가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이나 로버트 녹스(Robert Knox, 1791-1862) 등은 각각 『흑인 문제에 관한 직업적 담론(Occasional Discourse on the Negro Question)』에서 흑인 노동자를 게으르다고 묘사하기도 했고[43], 『인류의 인종(The Races of Men)』을 통해 인종을 생물학적 범주로 고정시키고, 인종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했다[44]. 심지어 헉슬리는 1864년, 영국 과학진흥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인류학 섹션을 신설하려 했으나 기존 ‘지리학 및 민족학 섹션(Section E)’의 회원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헉슬리의 지원으로 ‘생물학 섹션(Section D)’ 내에 인류학 하위 섹션이 설립되었고, 1869년에는 지리학 및 민족학 섹션에서 민족학이 빠지고 지리학만 남게 되었다[45]. 헉슬리는 1868년부터 1871년까지 런던 민족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런던 민족학회와 런던 인류학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학회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1869년 헉슬리의 사망으로 통합의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1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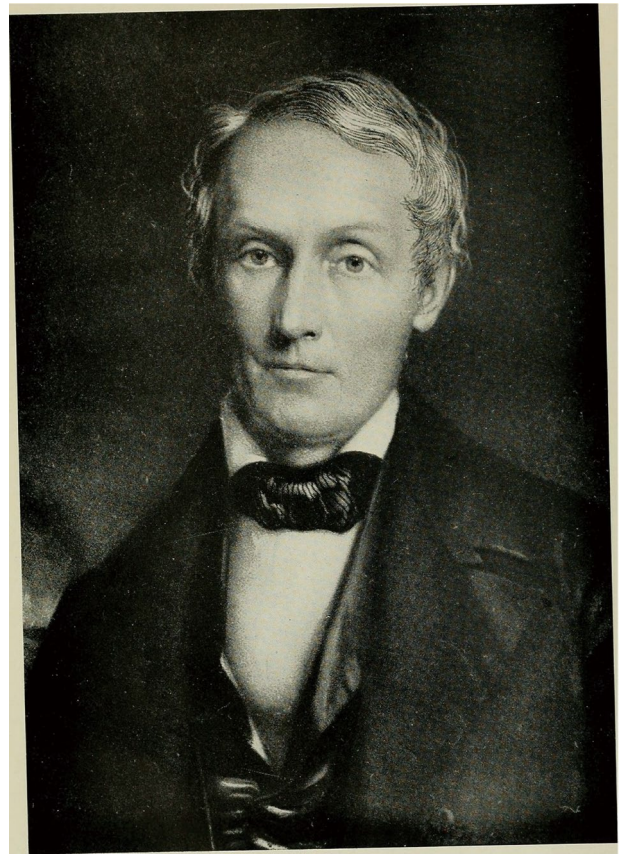
년 왕립 영국 아일랜드 인류학 연구소(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RAI)가 설립되었다(‘왕립’ 칭호는 1907년에 부여받았다) [46].

RAI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학회로, 생물인류학, 진화인류학, 사회문화인류학, 시각인류학, 의료인류학 등 인류학의 모든 하위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인류 유전학, 고고학, 언어학과 같은 인접 학문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왕립 인류학 연구소 저널(*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을 발간하고 있다. 주요 회장으로 1871년부터 72년까지 회장을 지낸 러복, 1875~76년과 1881~82년에 회장을 지낸 현대 문화인류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Tylor, 1832-1917), 1885~88년 통계학 및 우생학을 창시한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 1822-1911), 1913~16년 회장을 지낸 고인류학자 아서 키스(Arthur Keith, 1866-1955), 1945~91년 회장을 지낸 현대 사회인류학의 거장 에드워드 에반스-프리처드(E. E. Evans-Pritchard, 1902-1973), 1971~75년 회장을 지낸 구조주의 인류학과 상징주의를 연구한 에드먼드 리치(Edmund Ronald Leach, 1910-1989) 등이 있다[47].

### 5. 사무엘 몰턴과 미국의 체질인류학

한편, 미국에서는 사무엘 G. 몰턴(Samuel G. Morton, 1799-1851)이 ‘미국 체질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린다(Fig. 5).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지질학, 해부학, 두개골 연구에 걸쳐 큰 업적을 쌓았다. 이른바 미국 학파 민족학(American School Ethnology)을 창시하며 5대 인종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900개가 넘는 두개골을 수집하고 분석했으며[48],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두개골에 관한 『아메리카인의 두개골(*Crania Americana*)』을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내에서 인류학은 이미 갈등을 빚고 있었다. 미국 최초의 인류학회는 1842년, 미국 민족학회(Th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AES)라는 이름으로 성립되었는데, 성서에 기반한 단일기원설을 주장했다. 당시 새롭게 부상한 민족학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인간 종족과 관련된 모든 탐구를 장려”하는 것이었다[49]. 노예제 반대와 원주민 보호 등의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1879년에는 워싱턴 D.C.에서 인류학회(Anthropological Society of Washington, ASW)가 창립되어 학술지 『*American Anthropologist*』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1879년에는 미국 민속학국(Bureau of American Ethnology)이 설립되어 원주민 문화와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1882년에는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



**Fig. 5.** Portrait of Sam Samuel G. Morton, 1799-1851), an American physician and natural scientist known for his extensive collection of human skulls and his work in craniometry. Morton's studies, notably *Crania Americana* (1839),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19th-century scientific racism and influenced the American School of Anthropology. Illustration from an early 20th-century publication, scanned by the Internet Archive. Public domain image via Flickr (<https://www.flickr.com/photos/internetarchivebookimages/20315895330>).

ence, AAAS)가 인류학 섹션을 신설했다[50]. AES는 초기 재정·이념 갈등을 겪었으나 20세기 초 보아스를 비롯한 주요 인물 참여로 학문적 기틀을 마련했고, 1972년 『*American Ethnologist*』 창간과 1980년 미국인류학회 하위 섹션 편입을 통해 미국 인류학계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49].

한편, 1902년에는 보아스 등의 주도로 미국인류학회(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AAA)가 설립되었다. 이는 1848년 창립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동명의 학회를 재조직한 것으로, AES와 ASW 회원들이 국가적 수준의 전문 학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결과다. 기존에 ASW가 발간하던 『*American Anthropologist*』 역시 AAA가 이어받았다. AAA는 인류학 전 분야를 포괄하는 38개 섹션을 운영하며

20여 종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체질인류학에 관한 분과 학회로 생물 인류학 섹션(Biological Anthropology Section, BAS), 진화인류학회(Evolutionary Anthropology Society, EAS), 음식 및 영양 인류학회(Society for the Anthropology of Food and Nutrition, SAFN) 등이 있다. 역대 회장으로 보아스, 알프레드 크뢰버(Alfred L. Kroeber, 1876-1960), 에드워드 사피어(Edward Sapir, 1884-1939),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 1901-1978),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 1887-1948), 로이 라파포트(Roy Rappaport, 1926-1997) 등의 문화인류학자가 있으며, 체질인류학자로 윌리엄 하웰스(William W. Howells, 1908-2005), 셔우드 L. 워시번(Sherwood L. Washburn, 1911-2000), 클라이드 클럭혼(Clyde Kluckhohn, 1905-1960), 제인 부익스트라(Jane Buikstra, 1945-) 등도 AAA의 회장을 지낸 바 있다[51-53].

또한, 미국 생물인류학에 큰 영향을 미친 어니스트 후튼(Ernst Hooton, 1887-1954)도 빼놓을 수 없다. 1928년 미국 체질인류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y, AAPA) 창립에 참여했는데, 이 학회는 알레스 흐르들리츠키(Aleš Hrdlička) 제안으로 AAAS 인류학 섹션(Section H) 회의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도 AAA와는 별도로 운영하며 「미국 체질인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를 발간한다. 후튼은 비교생물학적 인류학 연구를 통해 인종주의 연구를 진행한 인물이며, 흐르들리츠키는 프랑스 학파의 학문적 원칙과 전통을 미국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4,55]. 후튼의 인종주의 연구는 훗날 큰 비난을 받았지만, 체질인류학 교육을 미국에 정착시킨 공도 상당하다. 1913년부터 하버드에서 28명의 박사 과정을 지도하며 미국 체질인류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56]. 대표적으로 워시번, 하웰스, 쿤, 조셉 버드셀(Joseph Birdsell, 1908-1994), 스탠리 가른(Stanley Garn, 1922-2007) 등이 있다.

이렇게 체질인류학과 민족지학은 처음에는 분명한 분리 없이 시작되었다가, 다양한 이유로 분열과 갈등의 시기를 보내며 분열하였다가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는 해부학과 의학에 기반한 체질인류학이 인류학이라는 명칭을 선점했고, 문화인류학 등은 민족지학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체질인류학이 인류학의 여러 분과의 하나로 존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류학자 박순영에 따르면, “체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은 한 우산 아래에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즐거이 함께 살았다기보다는 주로 서로 무관심했고 때로는 적대적이기조차 했지만 별로 헤어져야 할 이유도 없어 끈을 유지한 관계”라고 하였다[8].

## 6. 구보 다케시와 식민지 조선의 체질인류학

한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19세기 말 도쿄인류학회가 창설되었고, 이후 고고학이 따로 분리되었으며, 다시 체질인류학과 민족지학(광의의 문화인류학)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서 여러 분야의 합동 연구나 학회 개최가 지속되었다. 식민지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경성제대 해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자들은 사회학 교실과 연계하며 만주·몽골을 답사하는 등 식민주의적 인류학 연구를 수행했다. 전반적으로 해방 이전 조선의 인류학은 유형학적 인류학, 인종주의적 식민주의 인류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36].

구보 다케시(久保武, 1875-1937)는 이러한 체질인류학적 연구에 기여한 대표적 인물이다. 가나자와 제4고등학교 의학부, 도쿄제국대학 의학부와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등에서 해부학을 공부하였으며, 1908년 대한의원 교육부의 해부학 교관으로 부임하여, 조선인의 체질 계측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도쿄제국대학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57]. 이후 조선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 교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로 근무하며, 해부학을 유형학적 인종학에 기반한 체질인류학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던 중, 1921년 43세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58].

이후 우에다 츠네키치(上田常吉, 1879-1926)와 츠자키 다카미치(津崎孝道, 1887-1978),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 1941-) 등이 경성의전과 경성제대 의학부 해부학 교실에서 조선인 신체 계측을 실시했으나, 이들 연구는 조선인의 미개성과 열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인이 중국인이거나 한국인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다케시의 가설을 뒷받침하려는 시도였지만, 실증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58]. 점차 우에다는 연구를 통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체질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내선 일체, 일선동조론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인류학은 체질인류학과 민족지학 간 교류가 있었지만, 일본 학계 영향 아래 분과 발전이나 자립적 전통을 형성하지 못했다. 전후 일본에서는 민족지학이 문화인류학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변경되었고[59], 기존의 인류학회에서는 주로 체질인류학 연구자가 활동하였다. 일본인류학회의 기관지인 「인류학잡지」에도 해부학 연구가 많이 게재되곤 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체질인류학은 일제시대 연구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어져 ‘일제시대 체질인류학에서 스스로 학문적 뿌리를 찾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58년 문화인류학회와 체질인류학회가 독립적으로 발족하면서 인류학의 양대 분과는 활발한 교류없이 독자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36].

## 7. 신 체질인류학의 등장

프랑스·독일·영국의 초기 체질인류학은 의학적 기반과 다 지역기원설, 과학적 인종주의를 통해 인종 간 차이를 고정된 생물학적 형질로 설명하려 했다. 미국에서도 찰스 데븐포트(Charles Davenport, 1866-1944)와 같은 인물이 우생학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관점을 강화하였고, 1920년경 이후 편향된 체질인류학 연구는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다[60-62].

그러나 보야스 등 비판적 학자들의 연구로 체질인류학은 인간 변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미국 체질인류학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이후 유전학·진화 이론을 결합한 현대적 틀이 형성되면서 현대적 체질인류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의 체질인류학은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른바 신 체질인류학의 시대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질인류학은 인종 분류의 생물학적 객관성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나치의 우생학이 초래한 사회적 비극은 체질인류학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이른바 ‘구 체질인류학’과 ‘신 체질인류학’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 생물학의 현대적 종합(modern synthesis)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었고, 점차 새로운 접근법인 신 체질인류학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신 체질인류학은 형태학적 형질 대신 유전적 형질을 인종 분류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포함했다. 그러나 당시 인류학자들은 유전자 흐름, 유효 인구 크기, 무작위 변동 등 인구 유전학의 핵심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쿤이나 가르, 버드셀 등은 새로운 진화유전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여전히 기존의 인종 분류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63,64].

사실 19세기부터 체질인류학은 영국을 중심으로 인간뿐 아니라 포유류, 특히 영장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당시에도 체질인류학은 유형학과 인종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인간 생물학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성장과 발달에 관한 연구, 골격의 기능적 분석, 브로카의 인간 잡종(hybrid) 연구 등이 그 예다. 50년대 이후 인간 진화, 생태학, 건강, 성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변화하면서, 체질인류학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학문적 변화를 주도한 워시번의 시대적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니스트 후튼의 제자이며, 뒤에서 언급할 이번 드보어(Irven DeVore, 1934-2014), 리처드 리(Richard

B. Lee, 1937-), 니콜라스 블러튼-존스(Nicholas Blurton-Jones, 1938-2022) 등을 지도한 하버드대 출신의 인류학 교수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에서 다양한 영장류 표본을 수집하고, 직접 영장류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연구로 경력을 쌓았는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진화적 변화를 대뇌화가 아니라 두발걷기라고 제안했으며, 하악골 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적응적 설명을 제시하고, 수렵채집인 연구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65]. 영장류를 자연 환경에서 연구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인간 기원에 관한 이론과 영장류 행동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

중전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워시번은 기존의 체질인류학이 인종 분류와 정적인 신체 측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간 진화와 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동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체적 형질을 고립된 단위로만 정의하기보다는 생리적 기능의 통합적 관점에서 적응적 중요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 체질인류학(The New Physical Anthropology)」 제하의 글에서, 생물학적 진화와 체질인류학 간의 강력한 연결을 구축하고, 체질인류학을 진화생물학의 틀 안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였다[66].

구체적으로 체질인류학에서 기존의 인종 분류를 지양하고,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한 동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인간 변이를 고정된 인종적 범주가 아닌, 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전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유전학과 다윈 진화론의 통합적 활용을 강조했다. 또한, 유전자 흐름, 돌연변이, 선택 압력을 분석해 인간 집단 내 변이를 연구해야 하며, 가설 기반 연구를 통해 인류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했다[66]. 이를 통해서 이른바 ‘신 체질인류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체질인류학이 생물인류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기존의 측정과 기술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진화 과정과 그 인과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연구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66,67].

신 체질인류학은 20세기 중반 이후 인간 생물학 특성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과거 체질인류학이 주로 외형적 측정과 인종 분류에 의존했다면, 이후 생물인류학은 유전적 변이, 환경 적응, 생태·문화적 요인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하며 인간을 진화론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56]. 점차 인간의 변이와 진화를 유전적, 생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생물인류학’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은 정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선택압에 따라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나간다는 관점을 견지한다[68,69]. 다시 말해서 진화 이론은 인류학의 여러 분야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36]. 특히 195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체질인

류학' 대신 '생물인류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학과·프로그램이 늘었으며, 하버드 대학교와 UCL 등에서도 이 흐름이 관찰된다(Fig. 1). 하버드 대학교의 인류학과는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체질인류학'에서 '생물인류학'으로 명칭 변경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체질인류학 프로그램도 90년대 초 '체질인류학'에서 '생물인류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종적 분류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접근 방식을 탈피하고, 생물학적, 진화적 연구를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의 일환이다.

2018년 AAPA 집행위원회는 학문적 부서, 강의 및 교과서에서 '체질인류학' 대신 '생물인류학'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많은 회원이 자신을 '생물인류학자'로 정체화한다는 점을 들어서 설문 조사를 거쳐 미국생물인류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Biological Anthropologists)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당시 총 2416명의 회원 중 100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82%가 학회의 이름 변경에 찬성했다[70].

## 8. 생물인류학에서 진화인류학으로

최근 들어 '생물인류학'이라는 명칭을 넘어 '진화인류학'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아직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인간의 기원과 진화, 생물학적 적응을 연구하는 학문적 초점이 본질적으로 진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인식에서 분과 학문의 정체성을 새롭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인류학을 비롯한 분야의 발전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 생태, 유전학을 통합하는 시도가 강화되면서, '진화인류학'이라는 명칭이 기존 생물인류학의 방향성을 더욱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제시되는 중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직 전면적이지 않지만, 듀크 대학교는 2006년 학과 명칭을 '진화인류학'으로 바꾸어 인간과 비인간 영장류의 진화적 측면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 일부 프로그램도 인간 진화 연구를 '진화인류학'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가 2022년 '생물인류학 교실'을 '진화인류학 교실'로 변경하였다.

진화인류학자 박순영은 2004년, 이미 인간보편성과 문화 다양성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진화이론을 제안했고, 종합 과학으로서의 인류학은 진화이론에 기반하여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칙성의 발견은 적절한 준거들의 존재에 달려있고, 그러한 준거들은 진화된 종으로서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보편성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다[36]. 또한, 진화생물학자인 피터 엘리슨(Peter Ellison, 1951-)은 한편, 문화인류학과 체질인류학(생물인류학)이 진화라는 개념 아래 결합하는 듯 보이지만, 문화인류학에서 진

화 개념은 종종 은유적 수준에 머무르며, 1980년대 이후 인문학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진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문적 가교는 약화되는 흐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67].

물론 법의학(forensics)과 생물고고학(bioarchaeology)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덜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도 진화론적 관점은 간접적으로나마 의미를 지니며, 과거 환경 적응과 유전 변이 분석, 또는 신체 변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67]. 예를 들어, 생물고고학에서는 과거 인간 집단의 환경 적응과 유전적 변이를 탐구하기 위해 진화론적 관점이 필수적이다. 또한, 법의학 분야에서도 신체적 특징의 변이를 분석할 때 진화적 접근이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편향된 형태학적 체질인류학이 인간-문화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 인류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진화생물학적 접근이 더욱 필요한지도 모른다[36].

명칭 자체가 학문의 본질을 완벽히 담아낼 수는 없다. 이름이 변한다고 해서 학문의 본질이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칭은 학문적 목표를 상기시키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이름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지난 백여 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는 인류학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이어졌고, 그 결과 체질인류학, 생물인류학, 진화인류학 등 혼재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마다 선호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사유부터 근대적 체질인류학, 그리고 생물·진화인류학의 확장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타이틀로 '진화인류학'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행동생태학, 공진화이론, 유전자 인류학, 진화의학, 진화공공보건학 등과 연계해 인간을 진화론적·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폭넓은 학문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 결론

체질인류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된 인간 신체와 기원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되어, 근대 이후 점차 과학적 기반의 학문으로 발전했다. 프랑스에서는 폴 브로카가 두개골 측정과 인종 연구를 통해 체질인류학을 독립적 학문으로 정립했으며, 독일에서는 루돌프 피르호가 생물학과 사회적 맥락을 융합한 연구로 체질인류학의 기틀을 다졌다. 영국에서는 헉슬리가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인간 진화 연구를 체계화했고, 미국에서는 몰턴과 후튼을 중심으로 체질인류학이 확산되었으나, 인종주의적 접근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치하 유형학에 편향된 체질인류학

이 도입되었으나, 해방 이후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체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민족지학)의 분열과 통합이 관찰되었으며, 점차 인류학은 각각의 학문적 전통을 발전시키면서도 인류학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협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체질인류학은 점차 학문 내외의 여러 변화에 힘입어 신 체질인류학 운동을 거쳐 생물인류학으로 전환되었고, 일부에서는 진화인류학이라는 이름하에 건강과 문화, 행동, 사회의 제반 현상을 진화적으로 설명하는 포괄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 인류학 분야에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의학·해부학·유전학·행동과학 등 유관 분야, 즉 넓은 의미의 진화인류학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인간성의 다양한 측면을 진화적 관점에서 통합하고, 적절한 분과 학문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 그리고 명칭의 발전적 수정을 통해서 체질인류학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Aristotle. Aristotle's on the Soul. Merrimack: Peripatetic Pr; 1981.
2. Jowett B. The Politics of Aristotle. Oxford: Clarendon Press; 1887.
3.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Crisp R, editor and translat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4. MacFarlane KN. Isidore of Seville on the Pagan Gods (Origines VIII. 11). Trans Am Philos Soc. 1980;70:1-40.
5. Koerner L. Linnaeus: Nature and n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6. Aristotle. Metaphys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
7. Aristotle. History of anima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8. Park H. Lecture of Evolutionary Anthropology. Seoul: Haenaim; 2024. Korean.
9. Harvey R. Philadelphus; Or, A Defence of Brutes and the Brutans History. London: John Wolfe; 1593.
10. Bartholin C, Du A, translators. Institutions Anatomiques de Gaspar Bartholin, augmentées et enrichies pour la seconde fois tant des opinions et observations nouvelles des modernes... que de plusieurs figures. 2nd ed. Paris: M. Hénault et J. Hénault; 1647. French.
11. Oyserman D, Coon HM, Kimmelmeier M.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 Bull. 2002;128:3.
12.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1.
13. Gelfand MJ, Bhawuk DPS, Nishii LH, Bechtold DJ.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House RJ, Hanges PJ, Javidan M, Dorfman PW, Gupta V, editors.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4. pp. 437-512.
14. Trinkaus E, Shipman P. The Neandertals: Of skeletons, scientists, and scandal. New York: Vintage; 1994.
15. Wartelle J-C. La Société d'Anthropologie de Paris de 1859 à 1920. Rev Hist Sci Hum. 2004;10:125-171. French.
16. Broca P. Revue d'anthropologie. Paris: C. Reinwald; 1872.
17. Van Wyhe J. Phrenology and the origins of Victorian scientific naturalism. London: Routledge; 2017.
18. Ashok SS. The history of race in anthropology: Paul Broca and the question of human hybridity. History. 2017;4:26-2017.
19. L'Anthropologie. About the journal [Internet]. [cited 2024 Dec 1]. Available from: <https://www.sciencedirect.com/journal/anthropologie>
20. Kuper A. Civilization, Culture, and Race: Anthrop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Modern European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p. 398-421.
21. Ackerknecht EH. Rudolf Virchow: doctor, statesman, anthropologist.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3.
22. Deutsche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About Deutsche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Internet]. c2024 [cited 2024 Dec 1]. Available from: <https://gfa-anthropologie.de>
23. Pusman K. Die 'Wissenschaften vom Menschen' auf Wiener Boden (1870-1959): die anthropologische Gesellschaft in Wien und die anthropologischen Disziplinen im Fokus von Wissenschaftsgeschichte, Wissenschafts- und Verdrängungspolitik. Wien: LIT Verlag Münster; 2008. German.
24. Schier W. Restitution von menschlichen Überresten aus den Sammlungen der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Ethnologie und Urgeschichte (BGAEU) an zwei Fallbeispielen: Vorbereitung, Durchführung und Medienecho. Mitt Berl Ges Anthropol Ethnol Urgesch. 2020;41:71-81. German.
25. Silver GA. Virchow, the heroic model in medicine: health policy by accolade. Am J Public Health. 1987;77:82-8.
26. Kuper A. The chosen primate: human nature and cultural divers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27. Kelly A. The descent of Darwin: the popularization of Darwinism in Germany, 1860-1914.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2.
28. Kuklick H. New history of anthropology. Chichester: John Wiley & Sons; 2009.
29. Mosse GL, Burau E, Holl HG. Die Geschichte des Rassismus in Europa. Hamburg: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90. Ger-

- man.
30. Weiss SF. Race hygiene and national efficiency: the eugenics of Wilhelm Schallmay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31. Boak AER. Rudolf Virchow - anthropologist and archeologist. *Sci Mon.* 1921;13:40-5.
  32. Weindling P. Health, race and German politics between national unification and Nazism, 1870-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3. Silberstein LJ, Cohn RL. The other in Jewish thought and history: constructions of Jewish culture and identity. New York: NYU Press; 1994.
  34. Zimmerman A. Anti-Semitism as skill: Rudolf Virchow's Schulstatistik and the racial composition of Germany. *Cent Eur Hist.* 1999;32:409-29.
  35. Massin B. From Virchow to Fischer: physical anthropology and 'modern race theories' in Wilhelmine Germany. In: Stocking GW, editor. *Volksgeist as method and ethic: essays on Boasian ethnography and the German anthropological traditi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6.
  36. Pak S. Academic tasks left by physical anthropology under Japanese colonialism and lessons from experiences of Western physical anthropology. *J Cross-Cult Stud.* 2004;10:191-220.
  37. Huxley TH. On the relations of man to the lower animals. London: Williams and Norgate; 1863.
  38. Huxley TH. O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chief modifications of mankind. *J Ethnol Soc Lond.* 1870;2:404-12.
  39. Prichard JC. Researches into the physical history of mankind. London: Sherwood, Gilbert & Piper; 1841.
  40. Lubbock J. Pre-historic times: as illustrated by ancient remains and the manners and customs of modern savages. London: JA Hill; 1865.
  41. Hunt J. The negro's place in nature: a paper read before the London Anthropological Society. London: Van Evrie, Horton & Co; 1864.
  42. Desmond A, Moore J. Darwin's sacred cause: how a hatred of slavery shaped Darwin's views on human evolu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4.
  43. Carlyle T. Occasional discourse on the negro question. *Frazier's Mag.* 1849.
  44. Knox R. The races of men: a fragment. London: H. Renshaw; 1850.
  45. Anthropology and the British Association. *Anthropol Rev.* 1865;3:354-71.
  46. Stocking GW. Victorian anthropology. New York: Free Press; 1987.
  47. Presidents [Internet].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c2017 [cited 2024 Dec 1]. Available from: <https://therai.org.uk/photographs/presidents/>
  48. Brace CL. "Race" is a four-letter word: the genesis of the concep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9. Halpern DF, Benbow CP, Geary DC, et al. The science of sex differences in science and mathematics. *Psychol Sci Public Interest.* 2007;8:1-51.
  50. Helm J. Social contexts of American ethnology, 1840-1984. *Anthropol News.* 1985;26:13.
  51. Barnard A. History and theory in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52. AAA history [Internet].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c2021 [cited 2024 Dec 1]. Available from: [www.americananthro.org](http://www.americananthro.org)
  53. Darnell R. Invisible genealogies: a history of Americanist anthropolog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1.
  54. Hooton EA. Apes, men, and morons. New York: G.P. Putnam's Sons; 1937.
  55. Hooton E. The importance of primate studies in anthropology. *Hum Biol.* 1954;26:179-88.
  56. Shapiro HL.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Am Anthropol.* 1959;61:371-9.
  57. Kubo T. Beiträge zur physischen Anthropologie der Koreaner [Doctoral Thesis]. Tokyo: Tokyo Imperial University; 1913. German.
  58. Shin K. The intellectual genealogy of physical anthropological anatomy knowledge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the biometric study in statistical method. *Yonsei J Med Hist.* 2020;23:41-62.
  59. Nakao K. Japanese anthropology in Japan and East Asia. In: Institute of Cross-Cultural Research Symposium; 2002.
  60. Davenport CB. Race crossing in Jamaica. *Sci Mon.* 1928;27:225-38.
  61. Kevles DJ. In the name of eugenics: genetics and the uses of human hered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62. Riddle O. Biographical memoir of Charles Benedict Davenport, 1866-1944.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47.
  63. Garn SM, Birdsell JB. Races: a study of the problems of race formation in man.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Photoduplication Service; 1950.
  64. Boyd WC. Genetics and the races of man. New York: Blackwell Oxford; 1950.
  65. Zihlman AL. The human evolution coloring book. 2nd ed. New York: Collins Reference; 2001.
  66. Washburn SL. The new physical anthropology. *Trans N Y Acad Sci.* 1951;13:298-304.
  67. Ellison PT. The evolution of physical anthropology. *Am J Phys Anthropol.* 2018;165:615-25.
  68. Dobzhansky T. Genetics and the origin of species. New

-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69. Mayr E. Systematics and the origin of species, from the view-point of a zoologi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42.
70. Results of the non-binding name change survey [Internet].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2018 [cited 2024 Dec 1]. Available from: <http://physanth.org/news/results-non-binding-name-change-survey/>

**간추림** : 본 연구는 체질인류학에서 생물인류학, 그리고 진화인류학으로 이어지는 인류학 분과 명칭 변화의 역사와 현대적 전환을 고찰하였다. 19세기 프랑스의 폴 브로카와 독일의 루돌프 피르호는 인간 형태학과 인종 분류를 중심으로 체질인류학을 정립하였지만, 식민주의와 우생학의 영향 속에서 그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역사적 문서 분석을 통하여 각 시기별 인류학의 학문적 변화와 명칭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후 20세기 중반, 유전학·생태학·인간 적응 연구의 부상과 함께 생물인류학은 고정된 인종 개념을 벗어나 진화 이론과 학제적 접근을 통합하였으며, 셔우드 워시번의 “신 체질인류학”은 이 전환점을 상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화인류학은 생물학·행동·문화적 차원을 아우르며 현대 인류학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진 학문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각국의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대표 연구자들의 활동이 인류학 분과 명칭 전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명칭 변화는 단순한 어휘 조정이 아니라, 인간 다양성과 진화를 해석하는 학문적 틀의 성숙과 확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인류학 내 학문적 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찾아보기 낱말** : 체질인류학, 생물인류학, 진화인류학, 인류학사